틀에서 벗어나기 Ⅴ.
교회는 변두리와 지하에서 강해졌고, 세상의 중심에서 타락했다.

1. 생명력

(1)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님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령이 되게 하셨다. 즉,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흙', '토양'일뿐이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을까? 생명력 있는 토양이기 때문이다. 죽은 토양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영이 그 토양을 지탱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흙은 같은데 어떤 사람이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 무엇을 왜 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마찬가지이다. 흙과 같은 사람안에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그 토양에 무엇이 자라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그 토양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지 (의, 평강, 기쁨), 아니면 사탄의 나라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게 된다. (바벨론-사치, 허영, 야망, 욕망, 세속적 성공관, 차별 등)

(2) 시작 - 변두리, 언더그라운드 영성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것처럼, 모든 시작을 항상 변두리 광야에서 시작하신다.

ㄱ) **다윗** :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보라. 그는 '목동'이었고, 변두리에서 준비되었다.
(사무엘이 찾을 때 리스트에도 없는 아들이었다)

ㄴ) **예수님** :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변두리), 그리고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준비되셨다.

ㄷ) **초대교회** : 초대교회의 시작.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시작되었다. (지하교회- 언더그라운드 교회)
(세례요한 -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준비되었다. 광야로 보내져 준비되었다.)

(3) 모세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에서 준비되었다.

[히브리서 11:24-26]
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영적인 힘과 세상의 힘은 다르다. 영적인 부와 세상의 부는 다르다. 왕자의 신분, 애굽의 모든 보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무엇을 더 큰 영적 자산과 힘으로 여기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왕자의 신분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중요한 영적 자산을 알게 하셨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4) 변두리 영성, 언더그라운드 영성

원래, 기독교의 시작은 언제나 '변두리, 언더그라운드의 영성'이다. 무슨 말인가? 세상의 영향력이 없는 곳, 다시 말해 세상이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는 준비됐고 시작되었다. 오히려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 세상을 정복해서 더 이상 적이 없고 세상 권력의 중심이 되었을 때 기독교는 가장 큰 타락을 경험했다.

2. 기독교는 탄압과 고난 속에서 성장했다. (기독교는 고난의 역사이다)

(1) 심판적 고난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심판은 '무싸르'를 이해하는 것이다. 자녀들을 훈계하는 이유는 바른길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요엘서-경제적, 전쟁의 심판). 결국 메시지는(선지자들-구원투수) 바른길로 가라는 것이다. 아버지의 훈계 또한 사랑이다. 바로 이것이 '무싸르'이다.

(2) 적으로부터 오는 고난

원수 마귀의 존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있다 (불화살을 쏘는 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공격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성도들의 고난은 적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라. 얼마나 많은 세력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씨를 말려 버리려 했는가? 지금도 그 공격은 모든 영역에서 강력하다.

(3) 기독교는 고난 속에서, 탄압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졌고 정결해졌다.

그 이유는 성도들은 이 모든 고난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것이다.

3. 기독교는 고난이 없을 때 오히려 타락하고 무너졌다.

(1) 유럽 기독교의 예

지금 완전히 무너졌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었던 자유가 그들에게 독이 되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 개념, 사상, 철학이 모든 것을 대신했다. 교회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인권중심'의 사고에서 받아들이며 지금의 유럽교회가 된 것이다. 종교화되었다. 형식화되었다. 생명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선교하지 않는다. 지금 유럽교회에서 성장하는 교회는 오순절 계열의 성령에 집중하는 뜨거운 교회들과, 생명을 돌보는 난민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다.

(2) 중국교회, 카타콤

오히려 고난 속에서 교회는 강력해졌다. 정결해졌다. 성장했다. 중국교회의 역사와 카타콤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이다. 생명을 거는 종교가 기독교이다. 그래서 더 강해진다.

(3)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쓸모있는 토양이 되도록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즉,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진짜 생명력이 무엇인지 교회가 그 심장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더 강해진다. 광야와 언더그라운드의 영성을 회복하라. 바벨론에서 나와서 광야로 카타콤의 지하교회 영성을 회복하라. 그 영성이 결국 교회의 힘이며, 성도의 능력이 된다.